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2분기)

---

2021. 8.

※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2분기)」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 목 차 ▶

### 요 약

1.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 / 1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3
  - 가. 최근 고용심리 개선 / 3
  - 나.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 / 5
  - 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 지속 / 8
3. 결론 및 시사점 / 10

## < 요약 >

### 1.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

- ▶ 최근 고용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임.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
  - ※ 4차 대유행은 1~3차 대유행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현재 진행형인 점, '20년 7~8월 고용감소폭(약 -27만명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1년 7월 이후 고용 증가폭이 올해 4~6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

###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가. 최근 고용심리 개선

- ▶ 올해 경기회복세로 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인력 수요 확대. 고용심리 개선으로 기업들의 신규구인인원이 증가하고, 구인배율도 상승
  - ※ '21년 6월 인력시정 BSI는 85로 '인력 과잉' 업체보다는 '인력 부족' 업체가 더 많은 상황. 인력시정 BSI는 경기 상승기에 하락하고 경기 하락기에는 상승(한국은행)
  - ※ 올해 2~3분기 기업의 채용계획인원은 전년동기비 24.2% 증가. 올해 6월 구인배율(구인인원 ÷ 구직인원)은 55.2%로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고용부)

#### 나.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

- ▶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은 최근 고용회복 시기에 고용이 작게 증가(혹은 지속 감소)한 반면, 코로나19에도 고용이 증가(혹은 작게 감소)했던 보건·복지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은 고용회복기에 고용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이 나타나고 있음.

#### <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비교 >

구분	전체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건설	운수·창고
'20.3~'21.2(월평균)	-42.8만명	-21.7만명	-17.7만명	-9.9만명	9.9만명	-0.3만명	4.0만명
'21.3~'21.6(월평균)	54.2만명	1.2만명	-16.3만명	4.1만명	21.1만명	12.6만명	9.0만명

⇒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2020.2월) 고용 수준 회복 여부도 업종별로 상이

※ 주요 업종별 고용 수준 회복 여부(% , '20.2월=100, 계절조정계열, 통계청)

▶ 미회복 업종('21.6월): 숙박·음식 94%, 도·소매 94%, 교육서비스 98%

→ '21.6월까지도 '20.2월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회복 업종('21.2월): 보건·복지 104%, 건설 101%, 운수·창고 102%

→ '21.2월부터 '20.2월 고용 수준을 넘어섬.

▶ 최근 고용회복 강도가 큰 보건·복지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의 고용 증가는 임시·일용직이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주도

※ '21.3~6월 증가한 보건·복지업 취업자 21.1만명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었고, 건설업 취업자 12.6만명 중 41.7%도 임시·일용직. 동기간 증가한 운수·창고업 취업자 9만명 중 32.3%는 임시·일용직, 35.3%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전년동기비)

## 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 증가세 지속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과 농림어업이 증가를 주도한 반면,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감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증가 주도(전년동기비)

※ 운수·창고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 수요 증가로, 농림어업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정부의 귀농 장려정책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 도·소매업(슈퍼·옷가게 등)과 교육서비스업(피아노·미술·요가학원 등)은 코로나19 여파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 3. 결론 및 시사점

▶ 2021년 2분기 고용 흐름은 경기회복 영향으로 고용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충격 강도가 컸던 업종과 최근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이 상이한 비대칭적 고용회복이 나타나고, '나홀로 사장'이라 불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경기회복세가 완전한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관광숙박업소, 면세점, 수련시설, 항공사, 여행사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필요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 능력 저하, 과당경쟁에 직면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창업교육과 경영·기술교육 지원 확대, 전문가 멘토링 확충 필요

# 1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

① **(고용지표 회복세)** 최근 고용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임.

- 취업자가 4개월(2021.3월~2021.6월)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창출력이 개선되는 모습.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2021년 4월 65.2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전년동월비)
- 실업자가 3개월(2021.4월~2021.6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도 3개월 연속 하락(전년동월비)

< 표 1. 최근 취업자·실업자·실업률 증감(전년동월비) 추이 >

구분	2020.12	2021.1	2021.2	2021.3	2021.4	2021.5	2021.6
취업자	-62.8만명	-98.2만명	-47.3만명	31.4만명	65.2만명	61.9만명	58.2만명
실업자	19.4만명	41.7만명	20.1만명	3.6만명	-2.5만명	-13.0만명	-13.6만명
실업률	0.7%p	1.6%p	0.8%p	0.1%p	-0.2%p	-0.5%p	-0.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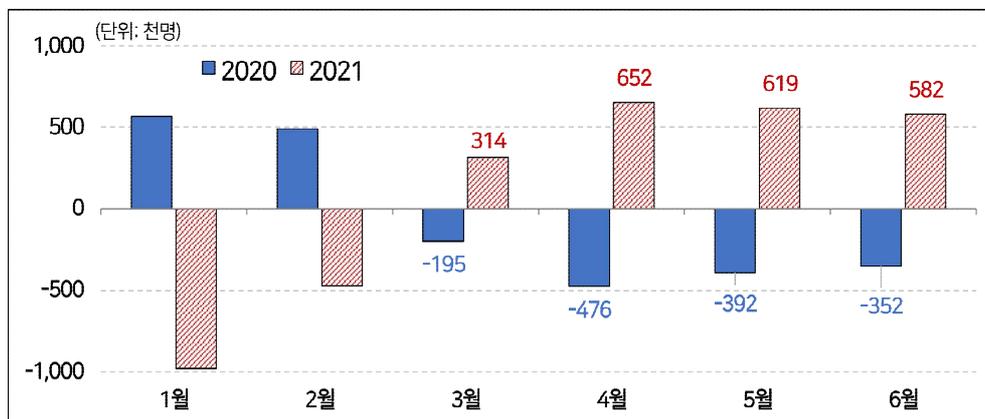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기저효과에 유의)**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현상

- ▶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된 '20년과 비교하면, '21년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커지는 착시현상 발생

< 그림 1. 월별 고용증감(전년동월비) 비교(2020년 vs 2021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③ (하반기 고용시장 불확실성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는 실질적 경제활동 위축 정도가 고용상황을 좌우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1~3차 대유행 시기 고용 위축 사례를 감안하면 하반기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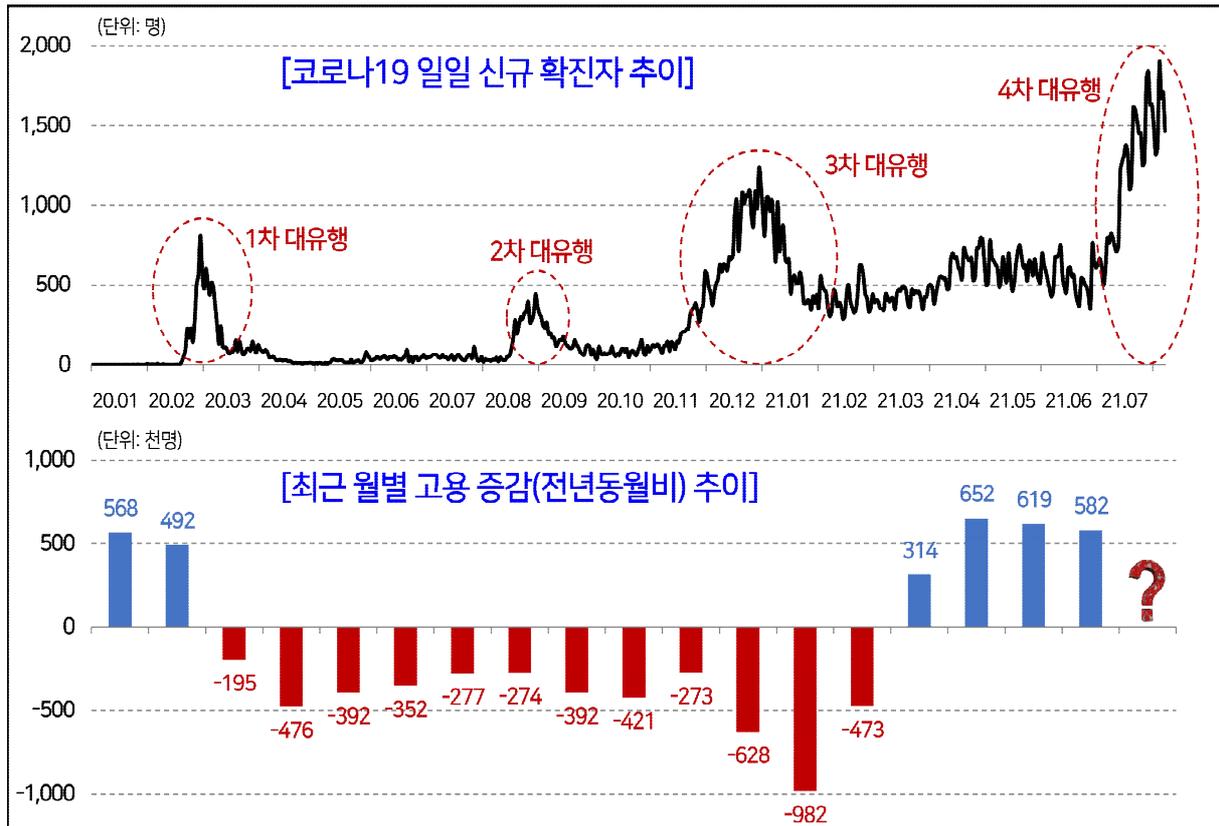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도권] 4단계(7.12~8.8), [비수도권] 3단계(7.27~8.8)

- 1차 대유행(2020.2월~2020.3월), 2차 대유행(2020.8월~2020.9월), 3차 대유행(2020.11월~2021.1월) 때는 약 1~2개월 후에 고용이 크게 위축

※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지표 특성상 1~3차 대유행의 영향이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큰 폭의 고용 감소로 이어졌음.

- ①4차 대유행(2021.7월~)은 1~3차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현재 진행 중인 점, ②2020년 7월~8월 고용감소폭(-27만명대)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21년 7월 이후 고용 증가폭이 올해 4~6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전년동월비).

< 그림 2.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와 최근 월별 고용증감(전년동월비) 추이 >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가 최근 고용심리 개선

① **(인력사정 BSI\* 하락)** 올해 들어 경기회복세가 강해지면서 인력사정 BSI가 하락(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기업 증가)하는 등 인력 수요가 점차 확대

\* 수치가 작을수록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산출식: 「인력 과잉」 응답비(%) - 「인력 부족」 응답비(%) + 100).

▶ 인력사정 BSI는 경기 상승기에 하락하고 경기 하락기에 상승(한국은행)

- 2021년 6월 인력사정 BSI는 85로 '인력 과잉' 업체보다는 '인력 부족' 업체가 더 많은 상황(전산업 인력사정 BSI는 90 초반에서 85로 하락)
-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인력사정 BSI 하락(인력 부족 체감 기업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 표 2. 인력사정 BSI(실적) 추이 >

구분	2020년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산업	90	91	91	89	91	90	86	87	87	85	85	85
제조업	98	99	98	94	95	93	91	92	88	86	86	85
비제조업	84	84	84	85	88	87	82	84	86	85	85	85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조사

#### < 최근 경제 상황(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 >

▶ '21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전기비 +0.7%**, **전년동기비 +5.9%** 기록. 전년동기비로는 '10년 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전기비] -1.3('20.1q)→ -3.2(2q)→ 2.2(3q)→ 1.1(4q)→ **1.7('21.1q)→ 0.7(2q)**

[전년동기비] 1.5('20.1q)→ -2.6(2q)→ -1.0(3q)→ -1.1(4q)→ **1.9('21.1q)→ 5.9(2q)**

② **(신규구인인원 확대)** 고용심리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으로 기업들의 신규구인인원이 증가하고, 구인배율도 상승하는 모습

- 올해 2~3분기(6개월) 기업들의 채용계획인원은 29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4.2%(5.8만명) 증가

< 표 3. 채용계획인원 및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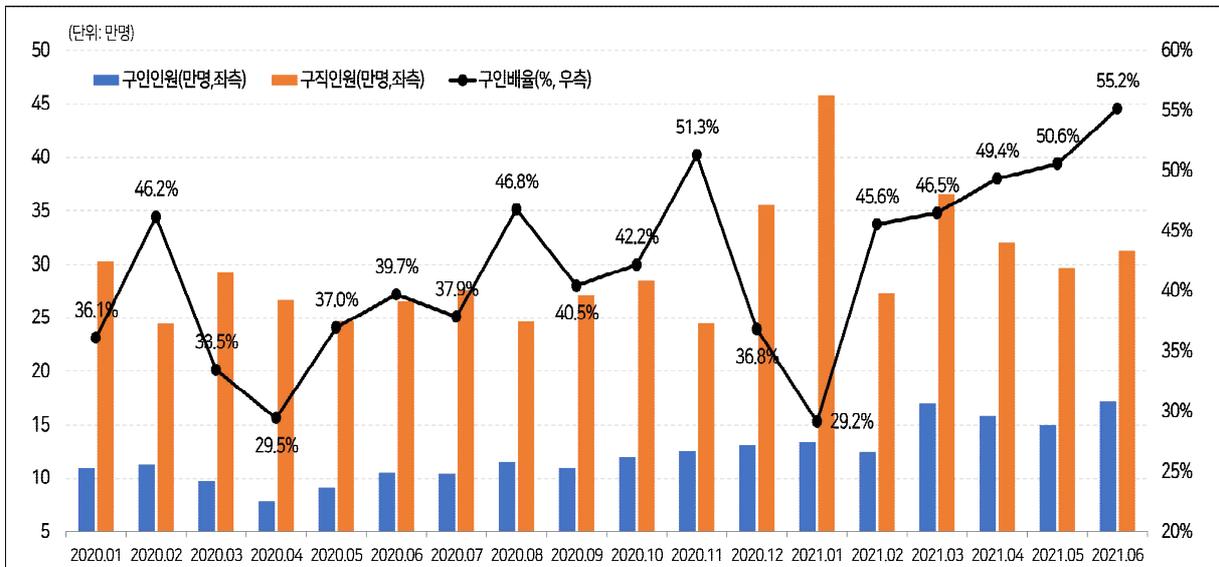
구분	2019.2q ~3q	2019.4q ~2020.1q	2020.2q ~3q	2020.4q ~2021.1q	2021.2q ~3q
채용계획인원	25.1만명	25.6만명	23.8만명	25.3만명	29.6만명
(전년동기비 증감)	(-6.3만명)	(-3.9만명)	(-1.3만명)	(-0.3만명)	(+5.8만명)
[전년동기비 증감률]	[-20.0%]	[-13.1%]	[-5.1%]	[-1.1%]	[+24.2%]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21.7

- 2021년 6월 구인배율\*은 55.2%를 기록하면서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2020년 1월 이후 최고치). 이는 시장에서 구인(사람을 찾는) 수요가 구직(일자리를 찾는) 수요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의미

\* 구인배율(구인인원 ÷ 구직인원)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상대적인 인력 수요가 많음을 의미

< 그림 3. 최근 구인인원, 구직인원, 구인배율 추이 >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

## 나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

①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과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 상이) 코로나19 고용 충격 강도(고용 감소폭)가 컸던 업종과 최근 고용회복 강도(고용 증가폭)가 큰 업종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2020.2월) 고용 수준 회복 여부도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이 나타나고 있음.

### [ 고용 증감폭 비교 ]

-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고용회복 시기에는 고용이 작게 증가(혹은 지속 감소)
-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 보건·복지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충격에도 고용이 증가(혹은 작게 감소)했고, 최근 고용회복 시기에는 고용이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

< 표 4.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비교 >

구분	전체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건설	운수·창고
'20.3~'21.2 (월평균)	-42.8만명	-21.7만명	-17.7만명	-9.9만명	9.9만명	-0.3만명	4.0만명
'21.3~'21.6 (월평균)	54.2만명	1.2만명	-16.3만명	4.1만명	21.1만명	12.6만명	9.0만명

주: 코로나19로 고용 감소가 지속된 기간[12개월('20.3~'21.2)], 올해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기간[4개월('21.3~'21.6)]의 고용증감을 각각 합산한 후 해당 개월 수(12개월, 4개월)로 나눈 월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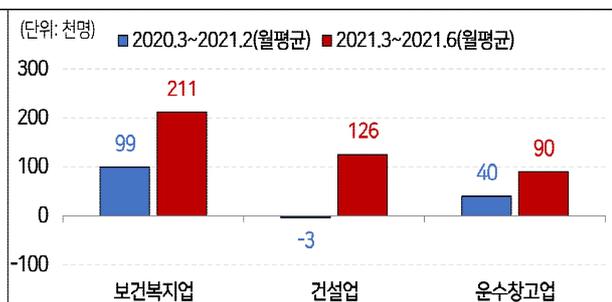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4.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비교 >

#### [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 ]



#### [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5.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의 종사상지위별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비교 >

구분		'20.3~'21.2 (월평균)	'21.3~'21.6 (월평균)
보건·복지업	소계	9.9만명	21.1만명 [100.0%]
	상용	5.0만명	6.8만명 [32.1%]
	<b>임시·일용</b>	<b>5.1만명</b>	<b>14.9만명 [70.5%]</b>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1만명	-0.3만명 [-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0.1만명	-0.2만명 [-1.2%]
건설업	소계	-0.3만명	12.6만명 [100.0%]
	상용	5.0만명	5.3만명 [42.0%]
	<b>임시·일용</b>	<b>-2.3만명</b>	<b>5.3만명 [41.7%]</b>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0.9만명 [6.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3.0만명	1.2만명 [9.4%]
운수·창고업	소계	4.0만명	9.0만명 [100.0%]
	상용	-1.1만명	2.4만명 [27.1%]
	<b>임시·일용</b>	<b>1.0만명</b>	<b>2.9만명 [32.1%]</b>
	<b>고용원 없는 자영업자</b>	<b>3.6만명</b>	<b>3.2만명 [35.3%]</b>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0.5만명	0.5만명 [5.5%]

주: 1. [ ]안은 업종별 전체 취업자 증감분 대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분 비중. '천명'단위에서 반올림된 값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동일 값이라도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을 의미

3.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코로나19 고용충격 시기와 최근 고용회복 시기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전년 동기비) 비교>

- ▶ 최근 고용회복은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이 주도(전산업 기준). 올해 3~6월 증가한 취업자 54.2만명(월평균) 중 55.2%가 임시·일용직, 55.1%는 상용직(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회복 시기에도 감소.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한 종사상지위의 비중 합이 100%을 초과)

구분		'20.3~'21.2 (월평균)	'21.3~'21.6 (월평균)
전산업	합계	-42.8만명	54.2만명 [100.0%]
	상용	20.8만명	29.9만명 [55.1%]
	<b>임시·일용</b>	<b>-49.5만명</b>	<b>29.9만명 [55.2%]</b>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2만명	9.5만명 [9.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21.3만명	-20.0만명 [-20.0%]

주: 1. [ ]안은 업종별 전체 취업자 증감분 대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분 비중. '천명'단위에서 반올림된 값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동일 값이라도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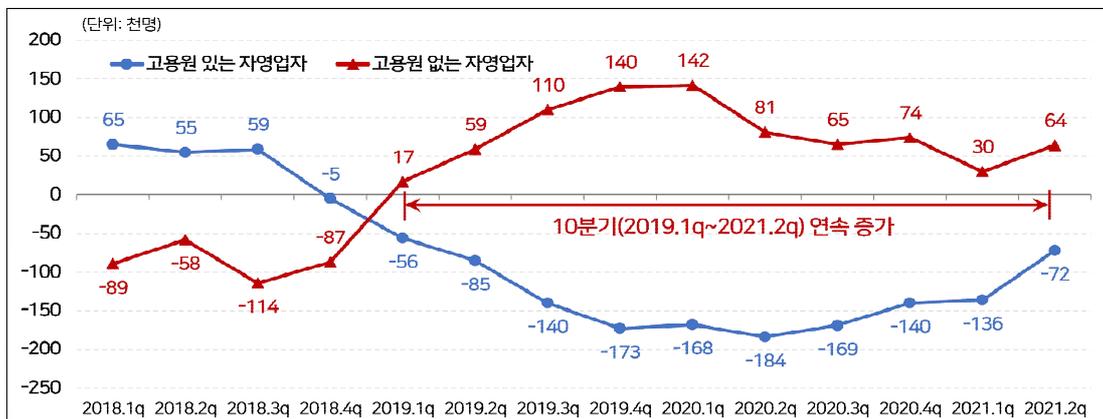
## 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 증가세 지속

① **(10분기 연속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증가(전년동기비)

-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통계청)
-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4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1분기 연속 감소(전년동기비)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통계청)

< 그림 6.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업종별: 운수·창고업, 농림어업이 증가 주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창고업, 농림어업이 증가를 주도한 반면,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감소(전년동기비)

- 운수·창고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정부의 귀농 장려정책\*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년)으로 귀농 등을 장려

※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로 자영업자에 포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라이더도 상당수(70% 이상)가 자영업자로 분류(한국은행)

※ 농림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상당수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됨(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의 59.5%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0년 기준)

- 도·소매업은 주인 혼자 운영하는 슈퍼·옷가게가, 교육서비스업은 주인 혼자 운영하는 피아노·미술·요가학원 등이 코로나19 여파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문을 닫아 해당 업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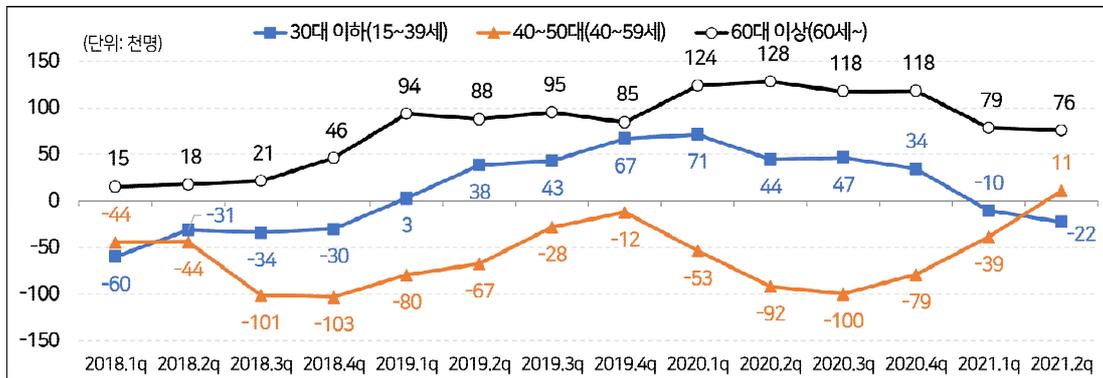
< 표 6. 주요 업종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전산업	운수·창고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2018.1q	-8.9만명	-1.6만명	1.6만명	-7.2만명	-1.2만명
2018.2q	-5.8만명	-1.5만명	1.4만명	-4.8만명	-0.4만명
2018.3q	-11.4만명	-1.0만명	1.2만명	-5.3만명	0.2만명
2018.4q	-8.7만명	0.3만명	1.2만명	-5.0만명	1.6만명
2019.1q	1.7만명	0.5만명	3.9만명	-2.7만명	2.4만명
2019.2q	5.9만명	1.2만명	-0.2만명	-1.0만명	3.0만명
2019.3q	11.0만명	1.8만명	1.6만명	1.9만명	-
2019.4q	14.0만명	1.6만명	2.7만명	1.9만명	-0.2만명
2020.1q	14.2만명	2.8만명	5.8만명	0.9만명	-0.3만명
2020.2q	8.1만명	4.3만명	4.7만명	-0.9만명	-3.8만명
2020.3q	6.5만명	3.9만명	2.2만명	-3.7만명	-1.8만명
2020.4q	7.4만명	3.0만명	2.5만명	-2.4만명	-3.9만명
2021.1q	3.0만명	3.5만명	1.2만명	-2.8만명	-4.2만명
2021.2q	6.4만명	2.9만명	1.8만명	-0.9만명	-2.0만명

주: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㉓ **(연령별: 60세 이상이 증가 주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0세 이상에서 지속 증가하는 모습. 그간 큰 폭으로 감소하던 40~50대는 올해 2분기에 증가로 전환된 반면, 30대 이하는 올해 들어 감소로 전환(전년동기비)

< 그림 7. 주요 연령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최근 동향과 전망)** 최근 고용지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세 시현. 다만 고용회복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
- ※ 4차 대유행(21.7~)의 강도가 1~3차 대유행보다 훨씬 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7월 이후 고용 증가폭이 올해 4~6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
- **(고용 흐름 특징)** 2021년 2분기 고용 흐름은 경기회복 영향으로 고용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충격 강도가 컸던 업종과 최근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이 상이한 비대칭적 고용회복이 나타나고, '나홀로 사장'이라 불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① **(고용심리 개선)** 경기회복세로 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고용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신규구인인원이 증가하고 구인배율도 상승
- ※ '21년 6월 인력사정 BSI는 85로 '인력 과잉' 업체보다 '인력 부족' 업체가 더 많은 상황(한국은행)
- ※ '21년 2~3분기 기업의 채용계획인원은 24.2% 증가(전년동기비), '21년 6월 구인배율(구인인원 ÷ 구직인원)은 55.2%로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고용부)
- ② **(업종별 비대칭적 고용회복)**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업종은 최근 고용회복기에 고용이 작게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충격에도 고용이 증가했던 업종은 고용회복기에 고용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이 나타나고 있음. 고용회복 강도가 큰 보건·복지업, 운수·창고업의 최근 고용 증가는 임시·일용직이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주도
- ※ 주요 업종 고용증감(만명, 전년동기비, 월평균, '20.3~'21.2 vs. '21.3~'21.6, 통계청)
- ▶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 [숙박·음식업] -21.7 vs. 1.2 [도·소매업] -17.7 vs. -16.3
  - ▶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 [보건·복지업] 9.9 vs. 21.1 [운수·창고업] 4.0 vs. 9.0
- ※ '21.3~6월 증가한 보건·복지업 취업자 21.1만명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었고, 동기간 증가한 운수·창고업 취업자 9만명 중 32.3%는 임시·일용직, 35.3%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석(전년동기비)

③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지속)**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과 농림어업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주도

※ 운수·창고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 수요 증가로, 농림어업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정부의 귀농장려정책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

▶ 現 종사상지위 분류상 택배기사와 플랫폼 라이더(70% 이상)는 자영업자로 분류(한국은행)

□ **(개선방안)** 경기회복세가 완전한 고용회복으로 이어져 그 온기가 서민경제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숙박업소, 면세점, 수련시설, 항공사, 여행사 등은 최근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그간의 고용유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큼. 이에 아직도 어려움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필요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180일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되어 있어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함.

②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디지털화 확산과 플랫폼 경제 부상 등으로 추세적 증가할 전망. 다만 이들은 규모가 영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영혁신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과당 경쟁에 직면해 있음. 이에 이들에 대한 경영·기술교육 지원 확대, 전문가 멘토링 확충 등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

\*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전문기술, 경영개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지원사업도 확대해야 함.